



첨단 산업과 함께하는 맞춤안전경영

IG실트론(주)구미 2공장-



▲ 이화훈 상무

엄마, 아빠 손잡고 나들이 가는 꼬마 녀석의 밝은 웃음에 나도 모르게 미소지어지는 것은 그 해맑은 웃음이 담고 있는 가정의 꿈, 행복, 그리고 사랑까지도 느낄 수 있어서일 것이다. 그 모든 꿈과 행복을 누가 감히 우리내 안전과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해맑은 아이의 웃음을, 우리 가정의 꿈과 행복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되어 노력하는 기업이 있다 하여 구미행기차에 몸을 실었다. 구미로 향하는 내내 왠지 모를 기대감에 마음 설레인다.

1985년 럭키소재(주)가 미국 실텍과 기술제휴를 맺으면서 국내 최초의 웨이퍼 공장이 설립되고, 이후 1990년 럭키소재가 동부전자통신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IG실트론(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꾸준한 연구와 개발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현재 구미 1, 2, 3공장과 이천 공장 등 총 4개의 사업장에서 1,500여명의



근로자들이 안전을 바탕으로 보다 양질의 제품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안전 뿌리가 깊숙이 자리한 사업장

IG실트론(주) 구미 2공장의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계단에서는 '나부터 변하자'라는 글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2004년 必達4'에 앞서 '0재해(무재해)'를 기본 목표로 삼는 IG실트론(주)의 이념을 잘 반영하는 예이다. IG실트론(주)는 2004년 꼭 달성해야 할 4가지 항목을 목표로 삼아 정진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①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② 생산성 20% ③ 경상이익 300억 ④ 매출액 4002억을 달성하자」라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단순한 이익창출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그 시작에 무재해라는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 12월 10일은 IG실트론(주) 모든 식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날이다. 창사이래 처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그 당시 최고의 수익과 매출을 올리고 있던 IG실트론이었지만 단 한건의 사고로 힘들여 쌓아올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이에,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관하여는 그 무엇보다 우선임을 강조하고 안전관련 부서명도 '시설환경안전팀'에서 안전을 제일 먼저 신경쓰자는 의미에서 '안전환경시설팀'으로 개명하였다.



사고는 예기치 않은 곳, 상식적이지 않은 곳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하는 이화훈 상무는 사람이 조심해야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지 않아도, 한순간의 실수로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로 인해 IG실트론(주)는 거의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였음은 물론, EESH System, 안전 순찰·점검, 교육 및 훈련 등으로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 LG 실트론(주)의 야심작 EESH System

IG실트론(주)에서 안전 야심작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EESH System'이다. 이른바, Energy (에너지), Environment (환경) Safety (안전) Health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화하여 IG실트론(주)의 전 사원 모두가 보고 참여하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각각의 카테고리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관리되

집중 안전 포커스




고 확인되기 때문에 정보의 수용이 빠르고 그에 따른 활동의 적용 및 개선·조치가 용이하다.

특히 사고 사례, 작업 허가서 관리, 사전 BSH 심사, 보호구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 부분에는 'e-안전환경'이라는 코너가 돋보인다. 안전 점검 시 지적된 내용들을 카메라로 찍어 사이트에 올리면 자동으로 관계 부서 관리자에게 통보되고, 일정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사이트에는 경고의 빨간 표시가 뜨고, 차 상위자에게 통보되어 개선율 100%에 도전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반장 이상의 관리자들은 반드시 외부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시켜 안전의식을 재무장시키고 아침마다 위험 예지 훈련과 팔단금이라는 체조를 실시하여 작업 전 업무 공유 및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작년에는 391건의 아차사고를 발굴, 사례집을 만들어 신입사원과 공정변경사원에게 교육시킴으로써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난 2월 1공장은 무재해 10배, 2공장은 무재해 4배수를 달성한 바 있는 IG실트론(주)는 잘될 때 더 잘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인지하고 항상 시작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년초 계획을 되새기며 전 사원이 사고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나 자신의 안전은 내가, 동료 직원의 안전도 내가' 라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해 무재해 일터로 거듭나겠다고 힘찬 결의를 다졌다.

기본을 지키며, 초심의 마음에서 항상 노력하는 이곳 식구들의 모습에서 해맑은 아이의 웃음이 더욱 밝아짐을 느낄 수 있었고, 그로 인한 가정의 행복과 더 나아가 사회, 국가의 안녕도 감히 예견할 수 있었다. 

〈성호연기자〉

